

『外臺秘要』의 熏法과 芳香療法에 관한 연구

大邱韓醫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丙旭* · 金恩瑕 · 金基郁 · 朴炫局

關於外臺秘要之熏法和芳香療法的研究

大邱韓醫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丙旭 · 金恩瑕 · 金基郁 · 朴炫局

1) Objective

『Wai-Tai-Mi-Yao』 had been made by Wang-Dao(王燾) in Tang Dynasty(唐朝). It included fumigation therapy and aroma therapy. Therefore we would like to bring out use sphere and detailed method of Fumigation therapy and Aroma therapy in Tang Dynasty and before period.

2) Conclusions

(1) Fumigation therapies of 『Wai-Tai-Mi-Yao』 have contained boil and burn. The effects of fumigation therapy are made by cooperation effect of medicine and heat.

(2) Aroma therapies of 『Wai-Tai-Mi-Yao』 have contained inhalation and attaching.

(3) Fumigation therapies of 『Wai-Tai-Mi-Yao』 have been used to cure infectious, internal, psychologic, dental, pediatric, dermatologic and surgical diseases. Especially these therapies have a good effect on cough.

(4) Aroma therapies of 『Wai-Tai-Mi-Yao』 have been used to cure infectious, internal, psychologic, dental, ophthalmic, otolaryngologic, obstetrics, gynecologic, dermatologic and surgical diseases. Especially this therapy has an good effect on nightmare.

keywords : 『Wai-Tai-Mi-Yao』, fumigation therapy, aroma therapy, external therapy

I. 序 論

熏法과 芳香療法은 대표적인 外治療法의 하나로써 藥을 구강을 통해서 胃腸管에 투여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皮膚나 呼吸器 등 九竅에 다양한 자극의 방법을 통하여 治療 效果를 誘導하는 방법이다.

熏法 또는 芳香療法에 대한 기록은 『山海經』의 “薰草，麻葉而方莖，赤華而黑實，臭如薜蘿，佩之可以已癘”¹⁾라 하여 향기가 나는 풀을 차고 다님으로써 疫病을 물리친다는 내용을 효시로 볼 수 있다. 이후에는 漢代 張仲景의 『金匱要略』에서는 “蝕於肛者，雄黃熏之”²⁾라고 하여 항문질환에 사용한 예를 찾을 수 있으며, 魏晉南北朝 王

* 교신저자 : 李丙旭, 대구 수성구 상동 165번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53) 770-2265, omis@dhu.ac.kr

1) 정재서, 산해경, 민음사, 1997, p. 74.

2) 김정범, 金匱要略辨釋, 韓醫文化社, 서울, 2003, p. 113.

叔和 역시 張仲景의 처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또한 葛洪은 『肘後備急方』에서 “又方，燒艾於管中薰之，令煙入下部，中少雜雄黃妙，此方是溪溫，故爾兼取彼治法。”³⁾，“若手足不隨方，取青布燒作煙，就小口器中燻痛處。”⁴⁾처럼 약물을 태워 연기를 쐬는 방식을 사용하여 外感傳染性 질환과 정신질환의 치료에 사용하였다. 또한 隋唐의 孫思邈도 “若手足痛者，燒青布，內小口器中，熏痛處。”⁵⁾라고 하여 熏法을 사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였다. 이처럼 熏法과 芳香療法는 다양한 질환에 끊임없이 꾸준히 사용되었다.

최근 한의학에서도 각종 외치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97년 대한한의학회 한의외치제형학회가 설립되고 2003년 1월 현재 약 7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외치요법에 관한 연구는 아직 특정질환에 대한 몇몇의 연구⁶⁾⁷⁾와 부분적인 시대고찰⁸⁾⁹⁾ 및 저서 몇 권¹⁰⁾¹¹⁾ 뿐이다. 따라서 고인들의 외치요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소개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熏法 또는 芳香療法와 관련된 치료기술은 적지 않은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唐代까지의 의학문헌을 정리하고, 인용한 책이나 권을 상세히 주해한 『外臺秘要』(이후 『外臺』라 간칭함.)의 연구를 통하여 唐代까지의 누적

된 熏法과 芳香療法의 응용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II. 研究方法

『外臺』는 당대 의방의 巨著 가운데 하나이다. 『外臺』는 종합적인 의학저작으로 門에 따라 분류하여 임상 각과 질병의 病因病理, 證候와 治療를 논하였다. 40권 가운데 卷1~20은 內科病, 卷21~22는 五官病, 卷23~24는 癰瘤, 瘰癧, 癰疽 등 外科病, 卷25~27은 前後陰病証, 卷28~30은 金瘡, 中惡, 惡疾, 大風 등의 병, 卷31~32는 丸散, 酒劑, 解毒諸方, 卷33~34는 婦人病, 卷35~36은 小兒病, 卷37~38은 服食乳石 및 石發諸病, 권39는 明堂灸法, 권40은 蟲獸傷 및 畜疾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유지하면서 각 門마다 기재된 熏法과 芳香療法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DB 검색

『外臺』에 기재된 熏法 및 芳香療法에 관한 연구는 四庫全書本 『外臺』HWP 파일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문단은 華夏出版社 外臺秘要方¹²⁾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DB의 구축 방식은 DB를 활용한 문헌연구(1)¹³⁾에 준하여 이루어졌으며, 외대비요의 원문을 입력하는데 총 15180개 레코드가 생성되었다.

1) 검색목록의 작성

DB의 활용은 원문검색이 가능한 상태에서 찾고자하는 내용의 핵심용어 및 그와 유사한 용어들의 목록을 작성한 뒤, 목록에 기재된 용어가 포함된 원문 레코드의 필드를 모두 출력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다양한 표현을 모두 검색함으로써 좀 더 많은 내용을 검색하는 것 못지않게 필요 없는 내용을 제거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는

3)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45.

4)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67.

5)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 376.

6) 권일혜, 정진홍, 유방질환에 관한 침구치료와 외치요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논문집10(1),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01, pp. 67-78.

7) 김미경, 정진홍, 대하에 대한 침구치료와 외치요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논문집10(1),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01, pp. 79-92.

8) 박태열, 고우신, 마왕퇴의서·황제내경·금궤요략에 나타난 중국 고대 외치요법, 동의생리병리학회지16(4), 대한동의생리학회·대한동의병리학회, 2002, pp. 617-625.

9) 金宰弘, 金賢兒: 吳師機의 外治法 思想에 대한 研究, 대한외관과학회지12(1), 대한외관과학회, 1999, p. 268-294.

10) 申光浩, 韓醫外治療法學, 대성의학사, 서울, 2000.

11) 申光浩, 漢方外用藥, 열린책들, 서울, 1994.

12) 王燾 撰, 高文鑄 校注: 外臺秘要方, 華夏出版社, 北京, 1993.

13) 이병옥: DB를 활용한 문헌연구(1), 한의정보학회지 10(1), 대한한의정보학회, 2004, pp. 23-35.

것 역시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外臺』에 기재된 외치요법 관련 문장을 효과적으로 찾기 위하여 『中醫外治療法集萃』, 『常見病證簡易外治療法』, 『理論駢文』, 『本草綱目外治療法』에서 언급한 여러 施術方法을 기초로 검색목록을 작성하였으며, 『千金要方』의 내용 중 熏法 및 芳香療法와 관련이 많은 글자를 보충하여 목록에 추가하였다.

2) 검색목록

DB 검색에 사용된 목록은 총 15개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燒, 烟, 煙, 燃, 灯, 燻, 薰, 繫¹⁴⁾, 聞, 枕, 佩, 嗅, 吸, 帶, 袋

위의 검색목록으로 사용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1) 繫: 약재를 매달고 다니다.
- (2) 帶, 袋: 약물을 휴대하다. 향기요법에 해당한다.
- (3) 燒, 烟, 煙, 燃, 灯, 燻, 薰, 薰: 약물을 전당하거나 태워서 환부에 김과 연기를 쏘이다.
- (4) 枕, 佩, 嗅, 吸: 약물을 지니고 다니며 향기를 맡다.

Ⅲ. 결과 및 고찰

『外臺』에 기재된 내용 중 앞에서 제시한 검색목록과 제외목록을 이용하여 검색하고 다시 관련 내용을 추려내는 작업은 검색목록에 제시된 용어를 중심으로 문맥상 의미가 외치요법 관련 내용인지 여부를 수작업 판단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熏法(燒, 烟, 煙, 燃, 燻, 薰)

본 요법은 외치요법 중 비교적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써, 약물을 煎湯하여 그 증기를

14) ‘繫’는 敷貼療法와 芳香療法 모두와 관련이 있으며, 그 중 後者에 좀 더 가깝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香療法 부분에서 언급한다.

환부에 쏘이는 것과 약물을 태워서 연기를 쏘이는 방법이다. 熏은 『說文』에서 “火烟上出也”라고 하였으며, 『中華大字典』에서는 “香氣也”, “蒸也”라고 하였다. 약물을 태우거나 물에 끓이면 연기나 수증기가 발생한다. 또 휘발성이 강하거나 향기가 강한 약물은 가만히 두어도 그 기운이 상승하며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이 기운을 효과적으로 쬐는 것이 이 처치법의 목적이다. 이 방법은 약물의 확산하는 기운을 섭취하는 방법이므로 陽氣를 보강할 수 있으며 寒氣를 몰아낼 수 있고 피부의 衛氣를 강화시킬 수 있다. 피부에 연기를 쬐어 사기를 몰아내고 약물이 갖고 있는 향기를 흡입하여 呼吸器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시도 될 수 있다¹⁵⁾. 이러한 방법은 아주 옛날부터 이미 민간에서 蒼朮 등의 잎을 태워 辟疫驅邪하는데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本草正義』¹⁶⁾와 『本草綱目』¹⁷⁾에도 그 예가 기술되어 있다¹⁸⁾. 대체로 이러한 처치에는 薰煙法, 薰蒸法, 熏洗法, 吸香法 등이 있다¹⁹⁾. 이러한 용법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수술적인 내용은 제거하였다. 『外臺』에서 熏法을 사용하여 外感病, 內科疾患, 精神疾患, 齒科疾患, 外科皮膚科疾患, 蟲獸傷, 小兒科疾患을 치료하였다.

1) 外感病

『外臺』에서는 外感 질환 중 溫病에 대하여 熏法을 사용하였는데, “又支太醫桃葉湯熏身法. 水一石, 煮桃葉, 取七升, 以薦席自圍, 衣被蓋上, 安桃湯於牀竇下, 取熱自熏, 停少時當雨汗, 汗遍去湯, 待歇速粉之, 并灸大椎則愈”²⁰⁾와 같이 뜨거운 김을 쏘임으로써 發汗시켜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又辟溫氣, 太一流金散方. 雄黃, 礬石, 鬼箭羽, 雌黃, 羚羊角. 右五味, 搗篩爲散, 三角縫囊盛一兩帶心前, 并掛門戶上. 若逢大疫之年, 月初青布裘一刀圭, 中庭燒之, 溫病人亦燒熏之”²¹⁾ 또는 “『千金』

15) 前掲書: 漢方外用藥, p. 100.

16) “芳香辟穢, 勝四時不正之氣, 故時疫之病多用之”

17) “張仲景辟一切惡氣, 用赤木(蒼朮)同猪蹄燒烟”

18) 張樹生, 王芝蘭: 古今中藥外治真傳,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1, p. 555.

19) 前掲書: 漢方外用藥, p. 100.

20) 前掲書: 外臺秘要方, p. 45.

辟溫, 虎頭殺鬼丸方, 虎頭骨, 朱砂, 鬼白, 雄黃, 皂莢, 雌黃, 蕪荑, 右七味, 搗篩, 以臘蜜和如彈丸大, 縫囊盛繫臂, 男左女右, 家中置屋四角, 月朔望夜半中庭燒一丸. 忌生血物”²²⁾과 같이 처방을 만들어 보관하다가 필요시 약재를 태운 연기를 환자에게 쏘이거나 집안에 연기를 피워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위의 두 가지 치료 방법 중 前者의 경우에는 실제 약물의 효과와 온열작용을 이용하여 病邪를 발산시키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後者の 경우에는 약성이 맹렬한 약제가 초자연적인 병인에 속하는 疫鬼를 몰아낸다는 주술적 의미와 약제의 연기가 자연적 병인에 속하는 溫邪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內科疾患

『外臺』에서는 內科疾患 중 熏法의 대부분 咳嗽의 치료에 사용하였다. 咳嗽의 치료는 “崔氏三十年以來呬咳, 并療之方. 葺苕子, 南青木香, 熏黃, 右三味等分, 搗篩爲散, 以羊脂塗青紙一張, 以散藥著紙上卷裹之, 平旦空腹燒裏頭令烟出, 吸取十咽, 日中時復吸十咽, 日晚後吸十咽, 七日內禁生冷醋滑, 三日則差”²³⁾, “『千金』療咳熏法. 細熬艾薄薄布紙上, 廣四寸, 復以石硫黃末薄布艾上, 務令調勻, 以荻一枝如紙長卷之, 作十枚, 先以火燒, 纏下去荻, 其烟從荻孔中出, 口吸取煙咽之, 取吐止. 明旦復熏之. 昨日餘者, 後日復熏之, 三日止, 自然差. 惟得食白糜, 餘皆禁之”²⁴⁾, “又方款冬花右一味和蜜火燒含取煙嚥之三數度則差”²⁵⁾ 등과 같이 약물의 연기를 흡입하여 해수를 그치게 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²⁶⁾²⁷⁾²⁸⁾²⁹⁾. 이외에도 心痛이나 蠱毒등을 치료

하는 방법도 기재되어 있다³⁰⁾. 여기에서 咳嗽의 치료는 약물의 증기를 호흡을 통하여 직접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精神疾患

『外臺』에서는 귀신에 홀린 증상, 情緒障礙 및 夢精을 치료하는데 熏法을 사용하였는데, “『近効』大麝香丸, 療積年心痛, 尸疰蠱毒, 癢癩氣乘心, 兩肋下有塊, 溫瘴精魅邪氣, 或悲或哭, 蛇蝎蜂等所螫, 並療之方. 麝香, 牛黃, 藜蘆, 朱砂, 蜀當歸, 茯苓, 桔梗, 鬼箭羽, 金牙, 烏頭, 桂心, 吳茱萸, 貫衆, 丹參, 蜈蚣, 乾薑, 人參, 虎骨, 鬼白, 芍藥, 雄黃, 巴豆, 蜥蜴, 右二十三味, 搗篩, 蜜和丸如梧子, 以飲下三丸, …… 仍每日燒一丸熏身體及衣裳, 宅中燒之亦好. 無患人以三五丸緋絹袋盛繫左臂上, 辟虎毒蛇諸精鬼魅等.”³¹⁾³²⁾와 같이 內服과 熏法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崔氏療夢與鬼神交通, 及狐

每旦取如雞子許, 用少許蜜拌花使潤, 納一升鐵鑪中, 又用一瓷碗合鑪, 碗底鑽一孔, 孔內插一小竹筒, 無竹筒亦得, 其筒稍長作碗鑪相合, 及挿筒處皆糊泥之, 勿令漏煙氣, 鑪下著炭火, 少時款冬煙自從筒中出, 則口含筒吸取煙咽之, 如覺心中少悶, 須暫舉頭, 即將指頭捻筒頭, 勿使漏煙氣, 吸煙使盡止. 凡如是三日一度爲之, 待至六日則飽食羊肉餽飪一頓, 則永差”

28) 上揭書, p. 162. “(古今錄驗)療咳飲, 煙法. 鍾乳, 白石英, 人參, 丹參, 雄黃, 水銀, 烏羊腎脂, 淨紙, 右八味, 各搗篩爲末, 以水銀投藥裏細研, 使人諸藥, 羊脂熬取置紙中, 令均平, 使厚一分, 散藥令周遍, 翦紙一張作三分, 瘦弱婦人五日用半寸熏, 未服藥前齋五日, 服藥後一百日, 忌五辛酒肉, 此一劑得療五十人, 上氣悉皆愈. 忌生血物”

29) 上揭書, pp. 162-163. “又療咳, 腹脹, 氣上不得臥, 身體水腫, 長孫振熏法. 蠟紙, 熏黃, 款冬花, 右三味, 并遍布艾上, 著一葦筒卷之, 寸別, 以繩繫之, 燒下頭, 欲煙咽之, 亦可三十咽, 欲訖則差. 欲盡三劑, 一百日斷鹽醋, 日一. 每飲三寸, 三日盡一劑”

30) 上揭書, p. 245. “『近効』大麝香丸, 療積年心痛, 尸疰蠱毒, 癢癩氣乘心, 兩肋下有塊, 溫瘴精魅邪氣, 或悲或哭, 蛇蝎蜂等所螫, 並療之方. 麝香, 牛黃, 藜蘆, 朱砂, 蜀當歸, 茯苓, 桔梗, 鬼箭羽, 金牙, 烏頭, 桂心, 吳茱萸, 貫衆, 丹參, 蜈蚣, 乾薑, 人參, 虎骨, 鬼白, 芍藥, 雄黃, 巴豆, 蜥蜴, 右二十三味, 搗篩, 蜜和丸如梧子, 以飲下三丸, …… 仍每日燒一丸熏身體及衣裳, 宅中燒之亦好. 無患人以三五丸緋絹袋盛繫左臂上, 辟虎毒蛇諸精鬼魅等.”

31) 上揭書, p. 245.

32) 上揭書, p. 605.

21) 上揭書, p. 62.

22) 上揭書, p. 62.

23) 上揭書, p. 162.

24) 上揭書, p. 162.

25) 『積年久咳方二十一首』

26) 上揭書, p. 162. “爛青布廣四寸上布艾, 艾上又布青礬石末, 礬上布少熏黃末, 又布少鹽, 又布少艾末, 急卷之, 燒令著, 內燥鑪中, 以紙蒙頭作小孔, 以口含取煙咽之, 以吐爲度, 間時復息, 煙盡止, 日一二用, 三卷用不盡差. 三七日慎油膩”

27) 上揭書, p. 162. “崔氏療久咳不差, 熏法. 款冬花, 右一味,

狸精魅等方。野狐鼻，豹鼻，狐頭骨，雄黃，臙膈臍，鬼箭羽，露蜂房，白朮，虎頭骨，阿魏藥，驢馬狗駝牛等毛，右十五味，並大秤兩，搗篩爲散，攪使調勻，又先以水煮松脂候烱，接取以和散。和散之時勿以手攪，將虎爪攪，和爲丸，如彈丸，以熏患者。欲熏之時，蓋覆衣被，勿令藥煙泄外。別搗雄黃爲末，以藉藥燒，藥節度一如熏香法。其藥欲分於牀下燒熏彌善。忌桃李雀肉等³³⁾，“『備急』陶氏療女人與鬼物交通，獨言笑或悲思恍惚方。松脂，納雄黃末，右二味，用虎爪攪令調，丸如彈丸，夜納籠中燒之，令女裸坐籠上，被急自蒙，唯出頭耳，過三熏即斷³⁴⁾처럼 오직熏法만을 이용하여 夢精을 치료하는 방법을 기록하였다. 內服과熏法에 모두 응용하는 처방은 心神과 腎精을 補하는 약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虎骨과 같이 귀신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다고 믿는 약제가 소수 포함되어 心身을 건강하게 하여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熏法에만 사용되는 처방들은 광물성 약제와 신령스럽고 강인한 동물들을 약제로 사용하여 태워 그 기운을 흡수함으로써 귀신을 물리치는 효과를 기대한 치료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齒科疾患

『外臺』에서는 치과질환에 대하여 “苒苒子三合，青錢七文燒令赤，取小口瓶子，可令口含得者，將錢內瓶子中，取苒苒子一撮安錢上，令爆炆聲，仍以水少許淋錢上，即氣出，用熏齒，冷止。三合藥盡爲劑，蟲食，齲齒，風痛並用³⁵⁾”，“又方，黑殺羊脂苒苒子，右二味和，先燒鋤筴使赤內其中，煙出，以布單覆頭，令煙入口熏之³⁶⁾와 같이 苒苒子를 불에 달군 금속용기에 넣어 볶은 것에 물을 넣거나 혹은 羊脂와 함께 섞어 불에 달군 금속용기 속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구강에 흡입하여 충치를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5) 外科皮膚科疾患

33) 上揭書, pp. 245-246.

34) 上揭書, p. 246.

35) 上揭書, p. 422

36) 上揭書, p. 424

熏法을 사용한 外科 및 皮膚科疾患을 살펴보면 『外臺』에는 주로 陰部疾患과 化膿疾患의 치료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腋臭症, 金瘡傷 및 疥癬에 관한 치료법이 기재되어 있다.

陰部疾患에 대한熏法은 狐惑病을 “仲景『傷寒論』狐惑之病，其氣如傷寒，默默但欲臥，目瞑不得眠，起則不安，蝕於咽喉者爲惑，蝕於陰者爲狐，狐惑之病，並惡飲食，不欲聞飲食臭，其面乍赤乍黑乍白，蝕於上部其聲嘎，蝕於下部其咽乾。蝕於上部，瀉心湯主之，蝕於下部，苦參湯洗之，蝕於肛外者，雄黃熏之。”³⁷⁾와 같이 치료함으로써 감염에 의한 조직괴사를 막고자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³⁸⁾³⁹⁾⁴⁰⁾⁴¹⁾⁴²⁾⁴³⁾⁴⁴⁾가 있고, 또한 탈항을 치료하는 “(小品)療脫肛熏方以女萎一升以器中燒坐上熏肛門即愈⁴⁵⁾와 같이 女萎(玉竹)의 시원한 성질을 이용하여 염증반응으로 인하여 치핵이 탈출한 부위를 가라앉히고 훈증의 열기를 통하여 기혈소통을 좋게 하여 통증을 그치게 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化膿疾患에 대한熏法은 “又療鼠瘻瘰癧身熱方.

37) 上揭書, p. 39.

38) 上揭書, pp. 39-40. “又雄黃熏法兼主蠱病雄黃一物研末以兩筒瓦合之燒以熏下部”

39) 上揭書, p. 495. “『刪繁』療五痔，桃葉蒸痔方。桃葉，細糠，胡麻，右三味，合爲一家蒸之，取細糠熟爲度，內小口甕中，將肛門坐，桃葉氣熏入肛門，蟲出當死”

40) 上揭書, pp. 495-496. “『千金』療五痔方。狷皮，熏黃，熟艾，右三味，穿地作坑，調和取便熏之，取口中熏黃煙氣出爲佳，火氣稍盡即停，三日將息，更熏之，三度永差。勿犯風冷，羹臙將補，慎雞猪魚生冷”

41) 上揭書, p. 499. “又方，掘地深一尺，圓徑四寸，炭火燒令赤，去火，以魚簿著口上，取苒苒子一合納坑中，燒煙出，痔人坐上，以被擁，當汗出。密室內作之，以煙盡，更著一合苒苒子熏，避風如發汗法則差”

42) 上揭書, p. 501. “『小品』療脫肛，熏方。以女萎一升，以器中燒，坐上熏肛門，即愈。”

43) 上揭書, p. 506. “『集驗』療卒陰痛如刺，汗如雨出方。小蒜，止根，楊柳根，右三味，合燒，以酒灌之，及熱氣熏之，即愈。”

44) 上揭書, p. 697. “又療疔，頻用大效方。蚰蛇膽，青木香，石硫黃，鐵精，麝香，舊用五月五日蝦蟆，右六味等分，搗篩爲散，更細研，有患取如三碁子，和并花水，日再服，服訖先令便利了，即以後方桃枝熏下部訖，然後取散如二碁子，納竹管裏，深吹入下部中，亦日再，老少量減，其熏法每日一度，不用再爲之，甚良”

45) 上揭書, p. 501.

豕椒，右一味，以水淹足，煎熟去滓，置瓶中，覆瓶口，以瘡當上熏，候熱極乃止痛，膿血鼠當從瘡出，便愈。”⁴⁶⁾와 같이 체표의 화농을 촉진시켜 체내의 毒氣를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한 내용⁴⁷⁾⁴⁸⁾과 “『備急』療諸瘡中風寒水露，腫痛，云因瘡而腫者，皆中水及中風寒所作也，其腫氣入腹則殺人也方。燒黍穰，或牛馬乾糞，桑條輩多烟之物，掘地作坎，於中燒之，以版掩坎上，穿版作小孔，以瘡口當孔上熏之，令瘡汁出盡乃止。又滴熱蠟瘡中，佳。”⁴⁹⁾와 같이 외상에 의한 이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증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내용⁵⁰⁾⁵¹⁾을 기재하고 있다.

『外臺』에는 “又方，辛夷，細辛，芎藭，青木香，右四味等分，搗下篩作散，熏畢粉之。”⁵²⁾라는 熏法을 이용한 腋臭症의 치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방향성이 강한 약재를 태운 연기를 쏘이게 하여 체취를 가리는 것이며, 치료는 石灰分을 거드랑이에 발라 땀을 흡수하고 땀의 부패를 막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金瘡傷에 대한 熏法은 “『古今錄驗』療金瘡得風，身體強，口噤不能語，或因破打而得，及斧刀所傷，得風臨死，總用此方，無有不差，瓠蘆燒麻燭熏之方。取未開瓠蘆一枚，長柄者，開其口，隨瘡大小開之，令瘡相當，可繞四邊閉塞，勿使通氣，上復開一孔如碗口，取浮麻子燭兩條並燃，瓠蘆向上，燭盡更續之，不過半日即瘥。若不止亦，可經一兩日熏之，以差爲

度。若燭長不得內入瓠蘆，可中折用之。”⁵³⁾라고 하여 外傷으로 인하여 파상풍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죽게 되므로 창칼에 의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바로 熏法을 이용하여 상처부위의 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기재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癰疽 등의 질환에서 환부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소독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熏法을 이용한 疥癬의 치법은 “薰疥法，取艾如雞子大，先以布裹亂髮，於紙上置艾，熏黃末，硃砂末，杏仁末，水銀，各如杏仁許，水銀於掌中以唾研，塗紙上，以卷藥末，炙乾，燒以熏之。”⁵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疥癬을 일으키는 기생충을 죽이는 살충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蟲獸傷

熏法을 이용한 蟲獸傷의 치료는 “『近効』大麝香丸，療積年心痛，尸疰蠱毒，癢癬氣乘心，兩肋下有塊，溫瘴精魅邪氣，或悲或哭，蛇蠍蜂等所螫，並療之方。麝香，牛黃，藜蘆，朱砂，蜀當歸，茯苓，桔梗，鬼箭羽，金牙，烏頭，桂心，吳茱萸，貫衆，丹參，蜈蚣，乾薑，人參，虎骨，鬼白，芍藥，雄黃，巴豆，蜥蜴，右二十三味，搗篩，蜜和丸如梧子，以飲下三丸，……仍每日燒一丸熏身體及衣裳，宅中燒之亦好。無患人以三五丸緋絹袋盛繫左臂上，辟虎毒蛇諸精鬼魅等。”⁵⁵⁾⁵⁶⁾와 같이 약성이 강하거나 방향성이 강한 약재를 태운 연기를 쐐어 蟲獸의 접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고, “『肘後』療熊虎爪牙所傷毒痛方。燒青布以熏瘡口，毒即出。仍煮葛根汁令濃，以洗瘡，日十度。并搗葛根爲散，煮葛汁以服方寸匕，日五，甚者夜二。”⁵⁷⁾와 같이 짐승에 물린 상처에 이차적인 감염을 막기 위한 消毒 조치의 하나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⁵⁸⁾⁵⁹⁾.

46) 上揭書, p. 444.

47) 上揭書, p. 465. “又方，穿地作坑，口小裏大，深三尺，取乾雞屎五升，以艾及荊葉和之令可燃火，令煙出，納疽孔坑中，以衣擁坑口，勿洩煙，半日許當有蟲出。”

48) 上揭書, p. 467. “范汪飛黃散，療緩疽惡瘡，食惡肉方。取丹砂著瓦盆，南雄黃，著中央磁石，北會青，東白石英，西礬石，上石膏，次鍾乳，下雄黃，覆雲母，薄布下，各二兩，先搗篩瓦盆中，以一盆覆上羊毛泥令厚，作三隅竈，燒之以陳葦，一日成，取其飛者使之，甚妙”

49) 上揭書, pp. 560-561.

50) 上揭書, p. 467. “又療緩疽，以飛黃散食惡肉令盡，作土竈熏之方。雄黃，雞白屎，藜蘆，丹砂，乾鰻鱺魚，右五味，搗下篩，青布裹之，熏經三日乃止，止畢要以蛇銜膏摩之良。”

51) 上揭書, p. 566. “『肘後』療卒得侵淫瘡，轉廣有汁，多起於心，不早療之，繞身周匝，則能殺人方。以雞冠血塗之，良。又方，取牛糞新者，絞取汁，以塗之，亦燒煙熏之。”

52) 上揭書, p. 452.

53) 上揭書, p. 452.

54) 上揭書, pp. 592-593.

55) 上揭書, p. 245.

56) 上揭書, p. 605.

57) 上揭書, p. 818.

58) 上揭書, p. 826. “又惡蛇已洪腫爛者方。乾薑，水銀，豬脂，右三味，搗令相得，即置丸向碗中燒，以竹筒籠上，熏所腫處，未熏先破兩處，然後熏即差。”

59) 上揭書, p. 826. “『備急』療狐刺方。以熱蠟灌瘡中，又烟熏

7) 小兒科疾患

『外臺』에 기재된 熏法은 소아과질환에 있어서 외래 이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인 客忤를 “又凡非常人及諸物從外來，亦驚小兒致病，欲防之法，諸有從外來人及有異物入戶，當將兒迴避之，勿令見也。若不避者，即燒牛糞，令有煙氣，置戶前則善”⁶⁰⁾과 같이 조치함으로써 연기를 통하여 과민반응의 원인을 사전에 소독하려는 의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역시 발병 이후의 치료법이 아니라 예방법에 속한다.

2. 芳香療法

芳香療法은 방향성을 가진 약재로 구성된 처방을 이용하여 각종 형태의 香料, 食品, 外用劑를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한 요법이다⁶¹⁾. 2000여년전부터 古人들은 방향성을 가진 약재는 情緒安靜, 養生保健, 疾病豫防의 작용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神農本草經』의 “香者，氣之正，正氣盛則除邪辟穢也”라는 논술에서 알 수 있다. 『山海經·西山經』에 기재된 “薰草，麻葉而方莖，赤華而黑實，臭如薜蘿，佩之可以已瘴”⁶²⁾으로 볼 때, 당시 사람들은 방향성 약물의 淸氣를 이용하여 인체의 正氣를 고무시켜서 穢濁之邪를 제거하여 질병예방의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은 작은 비단주머니에 향료를 넣어 몸에 차고 다니거나 대들보에 매달아 두어 향을 퍼뜨리며 질병을 예방하였고 혹은 베게로 사용하거나 향료에 불을 피우는 방법들을 통하여 邪氣를 물리치고, 해충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였으며⁶³⁾, 특히 枕法을 이용하여 정신질환의 치료에도 사용되었다. 사용방법에는 焚香療法, 香枕療法, 香袋療法, 鼻香療法, 香汁療法, 塞鼻療法, 取嚏療法, 藥物香煙療法, 香灯養生法 등이 있다⁶⁴⁾. 주요 관련 용어로는 繫⁶⁵⁾, 聞, 枕, 佩, 嗅

吸 등이 있다. 이외에도 芳香療法은 熏法, 數貼療法, 藥袋療法, 藥栓療法 등의 곳곳의 外治法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外臺』에서 芳香療法을 사용하여 外感病, 內科疾患, 五官科疾患, 精神疾患, 外科皮膚科疾患, 蟲獸傷, 婦人科疾患을 치료하는 방법을 기재하였다.

1) 外感病

『外臺』에 기록된 芳香療法은 「辟溫方二十首」에 기록된 “『千金』辟溫，虎頭殺鬼丸方，虎頭骨，朱砂，鬼白，雄黃，皂莢，雌黃，蕪荑，右七味，搗篩，以臘蜜和如彈丸大，縫囊盛繫臂，男左女右，家中置屋四角，月朔望夜半中庭燒一丸，忌生血物”⁶⁶⁾과 같이 평소에 약을 지니고 다니거나 집안 곳곳에 걸어 두었다가 특정한 날에 태우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신체에 침범한 병사를 물리치는 방법 보다는 熏法에서 사용된 방법의 하나인 약성이 맹렬한 약재가 초자연적인 병인에 속하는 疫鬼를 몰아낸다는 주술적 의미와 약재의 연기가 자연적 병인에 속하는 溫邪를 제거하여 溫病을 예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⁶⁷⁾⁶⁸⁾. 또한 “『

64) 上揭書, pp. 45-7.

65) ‘繫’는 數貼療法과 芳香療法 모두와 관련이 있으며, 그 중 後者에 좀 더 가깝다. 그러므로 香療法 부분에서 언급한다.

66) 上揭書, p. 62.

67) 上揭書, p. 242. “崔氏金牙散，療江南三十六疰，人病經年，羸瘦垂死，服之皆瘥。并帶之能殺鬼氣，逐尸疰，諸惡穢不祥悉主之方。金牙，曾青，消石，礬石，石膏，莽草，玉支雄黃，朱砂，寒水石，龍骨，蛇蛻皮，芫青，當歸，龍膽，大黃，細辛，防風，大戟，芫花，野葛，茯苓，天雄，茯苓，附子，烏啄，乾薑，人參，桔梗，桂心，椒，貫衆，巴豆，狸骨，蜂房，鶴骨，右三十六味，搗篩爲散，以酒服一錢匕，漸增五分匕，日三。并以三角絳囊貯散方寸匕，以繫頭及心上，大良。一方加蜈蚣，蜥蜴，雌黃，鐵鏹，麝香，毒公，合四十二味。忌豬肉，生血物，生菜，冷水，大醋，蘆筍。”

68) 上揭書, p. 237. “文仲論，傳尸病，亦名痲瘡，遍疰，骨蒸，伏連，癩瘰，此病多因臨屍哭泣，屍氣入腹，連綿或五年，三年，有能食不作肌膚，或三日，五日，若微勞即發，大都頭額頭骨間，尋常微熱翕翕然，死復家中更染一人，如此乃至滅門，療之方。獾肝，鼈甲，野狸頭，紫菀，漢防己，蜀漆，麥門冬，甘草，右八味，搗篩以成鍊羊腎脂二分，合蜜一分，烱冷和丸。藥如梧子大，服十九丸，加至十五丸，日再，以飲下之。其藥合和訖，分一分頭邊著，一分懸門額上，一分繫臂上。先服頭邊，次服臂上，次服門上者，大驗。忌海藻，菘菜，莧菜”

之，令汁出，愈。此狐所溺之木，猶如蛇蛻也。”

60) 上揭書, p. 714.

61) 上揭書, p. 45.

62) 前揭書: 산해경, p. 74.

63) 前揭書: 외대비요방, p. 45.

近効』加減療一切瘧無不効, 比用不過再服, 入口如神, 萬不一失, 桃仁常山丸方. 桃仁, 常山, 豆豉, 右三味, 各別擣五六百杵, 又和更擣六七百杵, 然後點好酒如黑泥自成丸, 不飲酒事須酒下三十丸如梧子, 未發前服, 臨發更服三十丸, 以手捧之於鼻下嗅取氣便定.”⁶⁹⁾와 같이 약재를 태우지 않고 약재의 향을 코로 흡입하여 瘧疾을 치료하는 방법을 기록하였다.

2) 內科疾患

『外臺』에서는 芳香療法을 이용하여 咳嗽과 蠱를 치료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있는데, 咳嗽의 치료는 “崔氏三十年以來呶咳, 并療之方. 萇荇子, 南青木香, 熏黃, 右三味等分, 擣篩爲散, 以羊脂塗青紙一張, 以散藥著紙上卷裹之, 平旦空腹燒裹頭令烟出, 吸取十咽, 日中時復吸十咽, 日晚後吸十咽, 七日內禁生冷醋滑, 三日則差”⁷⁰⁾와 같이 약재를 태운 연기를 흡입하여 病所인 肺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방법으로 熏法에 포함되나 약성의 전달 과정에 코를 거쳐 폐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蠱의 치료에 관한 기록은 “崔氏療中蠱吐血方. 雄黃, 丹砂, 藜蘆, 右三味, 擣篩爲散, 旦以井花水服一刀圭, 當吐蠱毒. 忌生血物, 狸肉. 凡蠱有數種, 而人養作者最多也. 郡縣有名章者尤甚, 今東有句章, 章安故鄉, 南有豫章, 略無村不有, 餘縣亦有, 而不能如此之甚耳. 非唯其飲食不可啖, 乃至目色之, 已入人類, 此輩小易療. 復有自然飛蠱, 狀如鬼氣者, 難療. 此諸種, 得眞犀角, 麝香, 雄黃爲良藥, 人可常帶此, 亦預防之. 易有蠱卦, 又子產所說, 並以器皿中蟲爲蠱, 今省煩, 皿上安一蟲字, 或作蠱邊, 大非體也.”⁷¹⁾와 같이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蠱의 원인에 대하여 아직 막연한 상황에서 자연적인 현상을 원인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까닭에 犀角, 麝香, 雄黃과 같은 약재를 사용하여 초자연적인 병의 원인들을 제압하여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9) 上揭書, p. 90.

70) 上揭書, p. 162.

71) 上揭書, p. 543.

3) 五官科疾患

『외대』에서는 음식을 먹다가 잘못하여 머리카락이나 벌레를 삼켜서 기도 측에 걸린 경우 “『病源』有人因食飲內誤有頭髮, 隨食而入胃成癥. 胸喉間如有蟲上下來去者是也. …… 又療胸喉間覺有癥蟲上下, 偏聞葱豉食香, 此是髮蟲故也. 方. 油煎葱豉令香, 二日不食, 張口而臥, 將油葱豉置口邊, 蟲當漸出, 徐徐以物引去之, 無所忌.”⁷²⁾와 같이 물이나 기름과 같은 액체를 마시지 않고 코나 얼굴 주변에 기름이나 파와 두시를 넣어 끓인 기름을 발라 냄새를 맡게 하여 기도의 섬모운동을 촉진시켜 이물질을 뱉어내고자 시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4) 精神疾患

『外臺』에서는 귀신에 홀린 증상이나 가위에 눌리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芳香療法을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深師五邪丸, 療邪狂鬼魅, 妄言狂走, 恍惚不識人, 此爲鬼竊, 當得殺鬼丸方. 丹砂, 雄黃, 龍骨, 馬目毒公, 鬼箭, 鬼臼, 赤小豆, 芫青, 桃仁, 右九味, 擣下篩, 別研雄黃, 丹砂, 細絹篩, 合諸藥, 拌令和調後, 納蠟和之, 大如彈丸, 絳囊盛之, 繫臂, 男左女右, 小兒繫頭. 合藥勿令婦人, 雞犬見之. 所服蜜和丸如梧子, 一服三丸, 日三. 忌五辛, 生血物.”⁷³⁾와 같이 內服과 芳香療法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⁷⁴⁾⁷⁵⁾⁷⁶⁾을 이용하여 귀신

72) 上揭書, p. 222.

73) 上揭書, p. 245.

74) 上揭書, p. 245. “『近効』大麝香丸. 療積年心痛, 尸疰蠱毒, 癢癩氣乘心, 兩肋下有塊, 溫瘴精魅邪氣, 或悲或哭, 蛇蝎蜂等所蝮, 並療之方. 麝香, 牛黃, 藜蘆, 朱砂, 蜀當歸, 茯苓, 桔梗, 鬼箭羽, 金牙, 烏頭, 桂心, 吳茱萸, 貫衆, 丹參, 蜈蚣, 乾薑, 人參, 虎骨, 鬼臼, 芍藥, 雄黃, 巴豆, 蜥蜴, 右二十三味, 擣篩, 蜜和丸如梧子, 以飲下三丸. …… 仍每日燒丸熏身體及衣裳, 宅中燒之亦好. 無患人以三五丸絳絹袋盛繫左臂上, 辟虎毒蛇諸精鬼魅等.”

75) 上揭書, p. 603. “又大麝香丸. 療鬼注飛尸等, 萬病皆療之方. 麝香, 牛黃, 眞珠, 附子, 鬼臼, 莽草, 犀角, 礬石, 細辛, 桂心, 獾肝, 藜蘆, 蜈蚣, 蜥蜴, 地膽, 班猫, 杏仁, 丹砂, 雄黃, 礬石, 芫青, 亭長, 巴豆, 右二十三味, 合擣別擣巴豆, 杏仁如泥, 蜜和, 更擣三千杵, 丸如小豆. 每有病以飲服一丸, 日再, 漸至三丸尤妙. 毒蟲所蝮, 以摩之, 以知爲度. 若欲入毒疫癘鄉, 死喪家及鬼神廟塚墓處, 以絳囊盛之, 男左女右, 肘後繫之, 又以少許塗人中, 臥不認魅, 神忌如常法”

에 홀린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과 “又方枕麝香一分於頭邊, 佳. 又灌香少許.”⁷⁷⁾처럼 오직 芳香療法만을 이용하여 가위에 눌리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⁷⁸⁾⁷⁹⁾⁸⁰⁾⁸¹⁾을 기록하였다. 內服과 芳香療法에 모두 응용하는 처방은 心神과 腎精을 補하는 약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虎骨과 같이 귀신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다고 믿는 약재가 소수 포함되어 心身을 건강하게 하여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芳香療法에만 사용되는 처방들은 광물성 약재와 신령스럽고 강인한 동물들을 약재로 사용하여 베개로 사용하거나 睡眠時 휴대하는 방법을 통하여 귀신을 물리치는 효과를 기대한 치료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5) 外科皮膚科疾患

『外臺』에서는 “又石灰散, 主胡臭方. 青木香, 楓香, 丁香, 薰陸香, 陽起石, 橘皮, 礬石, 石灰, 右八味, 搗下篩, 以綿作篆子, 躡如四指, 長四寸, 展取藥著上, 卽以絹囊盛之, 繫著臂, 先以布拭揩令痛, 然夾之.”⁸²⁾와 같이 腋臭症에 대하여 방향성이 강한 약재와 광물성 약재를 혼합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액취를 유발하는 겨드랑이 부위의 땀과 기타 요소들을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먼저 제거한 이후 역겨운 냄새를 가리기 위하여 향기가 좋은 약재를 사용하였고, 이후에 분비될 땀을 흡수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백반과 석회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6) 上揭書, p. 606. “『千金』小金牙散, 療南方瘴癘疫氣, 脚弱, 風邪鬼注方. 金牙, 牛黃, 天雄, 草薢, 黃芩, 蜀椒, 由跋, 雄黃, 朱砂, 烏頭, 桂心, 莽草, 麝香, 萎蕤, 細辛, 犀角, 乾薑, 蜈蚣, 黃連, 右十九味, 治下篩, 爲散, 合牛黃, 麝香, 搗三千搗, 以溫酒服五錢匕, 日三夜二, 以知爲度. 以絳袋盛, 男左女右, 帶一方寸匕, 省病問孝, 不避夜行. 塗鼻人中, 辟鬼惡毒氣. 晨昏霧露亦塗之佳.”

77) 上揭書, p. 538.

78) 上揭書, p. 538. “又方, 以虎頭爲枕, 佳.”

79) 上揭書, p. 538. “又方, 取雄黃如棗核, 繫左腋下, 令人終身不覓也.”

80) 上揭書, p. 538. “又方, 作犀角枕, 佳.”

81) 上揭書, p. 538. “又方, 青木香內枕中, 并帶之亦佳.”

82) 上揭書, p. 541.

6) 蟲獸傷

『외대』에는 방향성이 강한 약재를 휴대함으로써 기생충의 접근을 막는 방식의 “又方, 取麝香, 大蒜合搗, 以羊脂和, 著筒中, 帶之行, 大良.”⁸³⁾과 같은 기생충 퇴치법이 기재되어 있다.

7) 婦人科疾患

『外臺』에서는 產後血暈의 원인 중 虛熱로 인하여 血氣가 위로 치솟고 복부가 공허해져서 생기는 증상에 “崔氏凡暈者皆是虛熱, 血氣奔逆, 腹中空所致. 欲分免者, 第一須先取驗醋, 以塗口鼻, 仍置醋於傍, 使聞其氣, 兼細細飲之, 此爲上法. 如覺暈, 卽以醋噴面, 蘇來卽飲醋仍少與解之.”⁸⁴⁾와 같이 식초를 이용하여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기재하였다. 이는 產後의 虛損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단지 眩暈과 함께 정신이 몽롱한 상태를 각성시키는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IV. 結 論

본 연구에서는 『外臺』에 기재된 熏法과 芳香療法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外臺』에 기재된 熏法은 약물을 직접 태우는 방식과 물에 넣어 끓이는 방식이 있으며, 熏法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內服을 겸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熏法은 本草 본래의 약성과 溫熱作用이 함께 어우러진 처방으로써 貼附療法 등에 비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에 약의 기운을 신체에 침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2. 『外臺』에 기재된 芳香療法은 약물을 단순히 휴대하는 방식, 태우거나 끓인 증기를 코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식, 약재를 태우거나 끓이지 않고 직접 향을 흡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芳香療法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內服을 겸하는 경우가 있었다.

83) 上揭書, p. 831.

84) 上揭書, p. 680.

3. 『外臺』에는 外感病, 內科疾患, 精神疾患, 齒科疾患, 外科皮膚科疾患, 蟲獸傷, 小兒科疾患 영역에 대한 熏法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특히 內科疾患의 咳嗽과 外科疾患의 化膿性 疾患의 치료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다.
4. 『外臺』에는 外感病, 內科疾患, 五官科疾患, 精神疾患, 外科皮膚科疾患, 蟲獸傷, 婦人科疾患 영역에 대한 芳香療法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특히 精神疾患 중 가위에 눌리는 증상과 귀신에 홀린 증상을 치료하는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다.
5. 『外臺』의 熏法과 芳香療法の 작용방식은 內服을 겸하는 경우에는 本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재의 일반적인 효능이 病所에 직접 도달하여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熏法이나 芳香療法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本草가 지니는 일반적인 효능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신령스러운 힘에 의지하여 치료를 기대했던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
10. 문우상, 외치요법 학술사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경산시, 2005.
11. 허경자, 외대비요에 기재된 외치요법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경산시, 2005.

V. 參考文獻

1. 박현국 외2인, 중국과학기술사의학편, 일중사, 서울, 2003.
2. 申光浩, 漢方外用藥, 열린책들, 서울, 1994.
3. 申光浩, 韓醫外治療法學, 대성의학사, 서울, 2000.
4. 楊柳, 本草綱目外治療法, 人民軍醫出版社, 北京, 2003.
5. 任玉讓, 中醫內治與外治, 世界圖書出版公司, 西安, 2000.
6. 정재서, 산해경, 민음사, 1997.
7. 王燾 撰, 高文鑄 校注: 『外臺秘要方』, 華夏出版社, 北京, 1993.
8. 이병욱 외4인, 千金要方에 기재된 藥浴療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17(1),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4, pp. 198-217.
9. 이병욱: DB를 활용한 문헌연구(1), 한의정보학회지10(1), 대한한의정보학회, 2004, pp. 23-35.